K-리그 개막전에 앞서

1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전북현대 FC홈경기 개막전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광국 전북현대 대표이사,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 김승수 전주시장 및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도 올 재정건정성 '양호'

예산규모 6조4079억 · 재정자립도 23.6% · 지주도 40.1% · 통합재정수지 570억원 흑자

전북도가 지난 28일 '2018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분야 16개 항목을 공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규모면에서는 처음으로 6조원대로 진입하는 6조4,079억원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3.6%, ▲재정자주도는 40.1%로 전년도 수준이고, 현행기준으로는 각각 18.1%, 34.6% ▲통합재정수지는 570억원 흑자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북도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6조4,079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43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예산규모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기준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1조 672억원(20.8%), 지방교부세 8,219억원(16%), 국고보조금 2조 9,681억원(58%), 기타 2,729억원(5.2%)이다.

세출 분야로는 사회복지 1조8,913억원(36.9%), 농림해양수산 8,811억원(17.2%), 일반공공행정 4,075억원(7.9%), 환경보호 3,296억원(6.4%), 문화 및 관광 2,942억원(5.7%)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 39%보다 15.4%가 낮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40.1%이며, 자주재원 확충노력으로 자체세입이 11.8%(1,231억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하여 흑 적자를 표현한다.

전북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4,932억원 증가한 5조 4,462억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57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교부세 확보, 자체세입 확충 등의 노력으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주거복지 · 사회주택 육성과정 아카데미 교육생 9일까지 모집

전주시는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등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이끌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일까지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관련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주거복지 · 사회주택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2018년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1회,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와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 청년 · 노인 · 장애인 · 문화 예술인 공유주택 및 쉐어하우징을 운영하는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강사로 초빙돼 주거복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 교육과 현장 탐방, 현장 사례 나누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 주거복지 · 사회주택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공무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게시판 및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이광재 초청 매니페스토 교육

전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약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강사로 초청돼 △선거 공약의 이해와 자치분권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참여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공약 관리 △민선 7기 전주시정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채규남 기자

"정월대보름, 몸에 좋은 잡곡 드세요"

지난 28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로비에서 연구원들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우리 잡곡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 구성

문 대통령 지시 8일만 국무조정실 ·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참여

정부가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사태 후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공통팀장으로 하는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를 구성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TF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TF는 군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회의를 열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발굴 · 협의 · 조정하게 된다. 업계 · 근로자 등 지역경제 영향도 점검한다.

정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급여 및 재취업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지원 가능한 사항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은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 ·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상현 전북도의원, 남원시장 출사표

"시민 소통 대통합 남원 열 것"

관광산업 육성 · 지역밀착형 복지 내실화 등 7대 공약 제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남원)이 1일 12년의 3선 도의원직을 사직하고 남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상현 의원은 "남원! 대통합의 길에 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젊고 희망에 찬! 진실하고 힘이 있는!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참일꾼! 이상현이 적임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반드시 남원을 대통합의 장을 열어가겠다"며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힘 있는 3선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수 있도록 남원시민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12년 동안 남원발전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남원이 튼튼해야 전북이 살고, 중앙이 산다"는 기조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며, 직접 발로 뛰고 또 뛰었으며, 특히 250개 지역구 마을을 해마다 돌아다니며 서민과 농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음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의 7대 공약으로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공감행정 구현 ▲관광산업 · 창의문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변화의 남원 만들기 ▲지역밀착형 복지 내실화와 복지확대 실현 ▲농업 · 농촌 활성화사업으로 1년 1억 농가 3천세대 육성 ▲탄탄한 지역경제발전 · 일자리 ▲생활체육시설 이용권 · 문화권 향유 확대 ▲편리한 교통환경 · 저렴한 대중교통 구축 등을 제시하고 30여 개의 세부내용으로 공약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스마트시티 기반 공모 대상 선정

도, 고창군 포함 12개 지자체… 112 긴급출동지원 등 시민 생명 보호

고창군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018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 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방비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지원해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통해 고창군을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사업과 스마트시티 센터와 112, 119, 8228 재난,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보호를 위한 재난구호, 범죄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사업계획으로는 5대 연계서비스로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 긴급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과 연계서비스로 ▲ CCTV통합관제시스템 ▲재난정보시스템 ▲문제차량 지능형 서비스 ▲상수도 원격검침 및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서비스로 ▲Lora자가 통신망 ▲스마트 야날로그 게이트 등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CCTV, 재난, 환경, 독거노인 응급상황을 한 번 더 꼼꼼히 관제함으로써 스마트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기반의 선진사례를 제시하게 된다.

최종엽 주택건축과장은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각종 방범, 재해, 재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더욱더 안전하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됐다"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한 전라북도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27일 고창선운산수련원 대회의실에서 우체국 MD, Do-Dream 마케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사업 Do-Dream 마케터 발대식을 열었다.

'달팽이장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북우정청, 우편사업 Do-Dream 마케터 발대식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27일 고창선운산수련원 대회의실에서 우체국MD, Do-Dream 마케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편사업 Do-Dream 마케터 발대식을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Do-Dream 마케터를 활용한 지역농가와의 정보공유 및 상품발굴, 상품이미지 제작, 상품판매 지원 등 상생경영 실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칠 청장은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전북달팽이장터'는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를 대신해서 상품기획에서 판매까지 대행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농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개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